

신앙사건의 윤리적 전환 가능성 탐색*

- 사중복음 사상의 보편적 가치윤리를 위한 해석학적 재구성

김상기 (서울신학대학교 글로벌사중복음연구소, 연구원)

- I. 들어가는 말
- II. 사중복음 신앙의 철학윤리적 토대
- III. 사중복음 신앙의 보편적 가치윤리
 - 1. 중생과 생명가치의 윤리
 - 2. 성결과 사랑의 윤리
 - 3. 치유와 평화의 윤리
 - 4. 재림과 정의의 윤리
- IV. 사중복음 신앙의 글로벌 가치윤리
 - 1. 근사치적 가치로서의 글로벌 가치윤리
 - 2. 사중복음 신앙의 글로벌 가치윤리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2.52.03>

* 본 연구는 2019년 5월 서울신학대학교 글로벌사중복음연구소에서 개최한 춘계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확장 및 수정, 보완된 것임을 밝힌다.

• ABSTRACT •

A Hermeneutic Conceptualization for the Universal Value Ethics of 'Four-Fold Gospel'

Kim, Sang-Kee (Researcher The Global Institute for the Fourfold-Gospel
Theology a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e researcher set out to reorganize the Four-Fold Gospel as theological doctrines and ideas in ethic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explored ways to discuss each idea of the Four-Fold Gospel, including “regeneration,” “holiness,” “divine healing,” and “second coming” within the category of philosophical ethics as the priority is to find contact points between the Four-Fold Gospel and the philosophical domain to expand and reproduce the discourse of the Four-Fold Gospel. This study examines global value ethics as approximate values that could reach universal ethics. It encompasses both the aspects of recovery(getting better) as getting better from a destroyed body and positive thinking(better than) as keeping and maintaining a healthier body. The event of the second coming is organized with the value of eternal “enjoyment” to all people within Christ. Such enjoyment can be fulfilled by the subordinate values of existential freedom from sins and cosmic justice from judgments.

Key words: Four-Fold Gospel, Regeneration, Holiness, Divine Healing, Second Coming, Universal Value Ethics, Global Value Ethics, Life Value Ethics, Ethics of Love, Ethics of Peace, Ethics of Justice

I. 들어가는 말

기독교 신학의 생명력은 사상의 보편적 가치화와 윤리적 실천화를 향한 노력과 추구에 있다. 이른바, 중생, 성결, 신유(치유), 재림으로 요약되는 ‘사중복음’ 신학사상 혹은 신앙은 오늘날 기독교대한성결교회를 비롯한 몇몇 특정 교단의 중심 교리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이 교리의 수혜자라 할 성결교회조차도 사중복음의 사상을 지나간 시대의 유물 정도로 여기며 주저하는 현실이며,¹⁾ 나아가 이를 구체적인 윤리적 전환을 모색하는 일에는 더욱더 무심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중복음 사상은 기독교 신학 전반은 아니더라도, 개신교 전통의 복음주의 신학계에서는 핵심적 테제라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²⁾

사중복음의 윤리적 전환을 언급하기 전에 사중복음의 역사적 맥락을 간단히 살펴보자. 사중복음은 16세기 유럽 종교개혁 이후부터 19세기 미국 부흥운동의 역사에 이르는 400년 동안 형성된 신앙이었다. ‘중생’은 16세기 마틴 루터가 바울의 로마서 해석을 통해 발견한 이신득의와 장 칼뱅이 천착했던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은총 신학의 열매였다. ‘성결’은 18세기 존 웨슬리의 기독교 완전으로서의 성화교리의 또 다른 이름이다. ‘신유’와 ‘재림’은 19세기 미국 부흥운동의 역사에서 마틴 냅(Martin Wells Knapp), 셋 쿡 리스(Seth Cook Rees), 윌리엄 갓비(William Baxter

1) Donald W. Dayton, *The Fourfold Gospel and Evangelicalism*, 박창훈 역. 『사중복음과 복음주의』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출판부, 2020), 199. 미국의 성결운동과 오순절신학의 역사 연구의 권위자인 도널드 데이튼 박사는 여러 차례 서울신학대학교 초청 강연에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한 바 있다. “나에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종종 사중복음에 대해 다소 주저하면서, 사중복음을 진지하게 신학화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도표제의 지위로 약화시켜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진정한 신학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성결 전통 외부의 신학적 맥락과 영향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사중복음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 최인식, 『테우스 호모』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1), 77.

Godbey) 등의 급진적 성결운동 지도자들³⁾에게서 새롭게 강조된 신앙이다. 따라서 사중복음이 담고 있는 각각의 사상은 단순히 몇몇 교단만의 전유물이라기보다는 루터교회를 비롯하여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그리고 오순절교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스며들어 있는 공유적 신학 사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중생과 성결과 신유와 재림의 네 가지 사상은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교부시대와 중세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흐르는 기독교 영성의 맥락에서도 발견된다. 이른바 중생-성결-신유-재림이라는 순차적 도식은 ‘영적 여정(spiritual journey)’이라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과정은 기독교 영성 신학에서 단계적 상승의 길로 불리는 ‘트레비아(Trea Vvia)’, 즉 ‘세 가지 길’이라는 오랜 전통⁴⁾ 위에 서 있다. 정화의 길(purification),

-
- 3) 글로벌사중복음연구소 편, 『19세기 급진적 성결운동 지도자들의 생애와 사상』 (서울: 도서출판 사랑마루, 2014). 서울신학대학교의 글로벌사중복음연구소가 펴낸 이 책은 19세기 미국의 급진적 성결운동을 이끌었던 세 명의 지도자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하고 있다. 이들은 유럽에서 일어난 존 웨슬리의 감리교운동이 19세 밀 미국에서 성결운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다.
- 4) 이른바, ‘트레비아’ 전통은 그 기원이 초대 교부시대로까지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3세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의 3단계 영적 진보의 길(믿음-소망-사랑)과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Origen of Alexandria)의 몸-혼-육 3단계 진보의 길, 6세기 위 디오니시우스(Pseudo-Dionysius)의 정화-조명-일치의 길, 12세기 클레르보의 베르나르(Bernard of Clairvaux)의 그리스도와와의 3단계 입맞춤의 길(발-손-입)과 정원-거실-침실에 이르는 세 가지 상승의 길,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초보자-진보자-완전자의 길과 동시대 에크하르트⁵⁾의 제자 요한 루우스브로에의 중-친구-이들의 길, 16세기 마틴 루터의 바깥뜰-일곱춧대-지성소의 길, 장 칼뱅의 선지자-제사장-왕의 길, 아빌라의 테레사(Teresa of Avila)의 7개의 방에 이르는 길, 그리고 예수회 창시자 로올라의 이그나티우스(Ignatius of Loyola)의 영적 진보 프로그램인 영신수련(The Spiritual Exercises)에서 행해진 정화-조명-일치에 따른 4주 영적 진보의 과정 등이 기독교 영성의 역사 속에 면면히 내려오고 있다. 방효익, 『영성사』 (서울: 바오로딸, 1996) / Jordan Aumann, *Spiritual Theology*, 이홍근 역. 『영성신학』 (왜관: 분도출판사, 1987) / Charles Andre Bernard, *Teologia Spirituale*, 정제천·박일 역. 『영성신학』 (서울: 가톨릭출판사, 1987) / Richard J. Foster & Gayle D. Beebe, *Longing for God*, 김명희·양혜원 역. 『영성을 살다』 (서울: IVP, 2009).

조명의 길(illumination), 일치의 길(unification)로 압축되는 트레비에는 중생-성결-신유-재림의 영적 과정과 큰 틀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사중복음은 개신교 500년의 역사를 포함하여 기독교 2,000년 영성사의 맥락에서도 읽어낼 수 있는 주제이다.

본 연구는 사중복음의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신학 혹은 신앙을 기독교윤리학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윤리적 가치 혹은 보편적 용어로 전환할 수 있는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사중복음의 교리는 원초적으로 신앙체험이자 신앙사건에서 기인한다. 사중복음 신학은 일차적으로 이러한 신앙체험의 사건을 체계적이고 이성적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학문적 노력이다. 사중복음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역사 초기 일명 ‘전도표제’라고 규정을 하거나, ‘확대된 케리그마’, 혹은 ‘신앙의 규칙(regula fide)’, 혹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성경해석의 원리’⁵⁾로 정의하는 일련의 모든 시도는 작게는 조직신학의 영역, 넓게는 신학 전반의 체계화 내지 이론화 작업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 사상을 윤리학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 윤리학이란 기본적으로 인간학이다. 즉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자 이치를 따지는 기술이다.⁶⁾ 인간 개인의 내면의 양심과 성품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와 개인적 타자, 사회적 타자, 국가적 타자, 기업과 환경과의 의도 등 다양한 타자와의 관계의 이치를 묻는 연구가 윤리학이다. 따라서 사중복음 사상을 윤리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일은 수직적 신학 영역에서 수평적 윤리 영역으로 풀어내려는 시도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사중복음이라는 신앙적 체험 혹은 신학적 사상들 속에서 윤리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탐색한 후, 이를 오늘날의 가치윤리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석

5) 오성욱, “사중복음 조직신학,” 서울신학대학교 글로벌사중복음연구소, 『글로벌신학과 사중복음』 (서울: 한들출판사, 2015), 193, 196, 200.

6) 김상기, 『제노사이드 속 폭력의 법칙』 (서울: 선인, 2008), 20.

학적 전환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다.

II. 사중복음 신앙의 철학윤리적 토대

사중복음이라는 신앙 혹은 신학의 사상을 철학윤리의 영역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학제간 융합 내지 대화 과정에서 범주적 비약과 오류의 가능성이 따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리신학의 영역에서 사중복음 내용들이 나름대로 세분화된 신학으로 자리매김 되듯이 윤리학과 철학도 마찬가지로. 예컨대, 조직신학에서 중생은 구원론, 성결은 인간론 혹은 성화론, 신유는 성령론, 그리고 재림은 종말론이라는 각각의 주제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중복음은 어떤 철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지며, 무슨 윤리로 재구성할 수 있을까?

첫째, 중생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새롭게 된다는 의미에서 본 연구는 이를 ‘됨(being)’의 윤리라고 명명한다. 이는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말한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거듭난 죄인이란 무엇인가?” “과거의 나는 누구이며, 지금의 나는 누구인가?” 중생의 과정에서는 끊임없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던져진다. 동시에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의 섭리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화 과정이다.

그런 면에서 중생은 인식론적 철학(Epistemology)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철학에서 인식론은 지식을 분석하거나 어떤 것이 지식으로 간주되기 위해 만족시켜야 할 조건들을 상술하거나, 또는 우리가 무엇을 아는지 결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아는지를 설명하는 분야이다.⁷⁾ 따라서

7) 한상기, “도덕 인식론과 윤리적 회의주의,” 한국동서철학회논문집, 『동서철학연구』 제 62호, 2011. 12. 212.

인식론에서는 “지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아는가?”,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들 가운데 어떤 믿음이 인식적으로 정당화되는 믿음인가?” 등의 물음이 제기된다.⁸⁾ 이른바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중생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 확신은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위에서 있는가?” 등의 중생과 관련한 신학적 질문은 철학에서는 인식론의 토대 위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결은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실천하는 의미에서 본 연구는 이를 ‘함(doing)’의 윤리, 즉 행위의 윤리라 부른다. 그 행위는 내면적 성품과 외면적 행위의 점진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하고 덕스러운 삶인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갈 것인가? 따라서 성결이란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위한 명령이자 의지라는 면에서 넓게는 규범윤리이자 행위윤리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규범윤리와 행위윤리는 다시 덕윤리로 발전하고 있는 흐름에 있다. 전자의 윤리들이 “행위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덕윤리는 “행위자”에 주목한다는 면에서 구별된다.

여기에는 알래스대어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와 같은 일반윤리학자를 비롯하여 스탠리 하우워와스(Stanley Hauerwas) 같은 기독교윤리학자들이 이 논의를 이끌고 있다. 특히 덕윤리가 ‘행위’(doing)보다는 ‘존재’(being)에 관심하면서 성품의 문제에 주목한다⁹⁾는 면에서 성결은 “거룩하게 산다는 행위”와 함께 “거룩하게 사는 행위자” 자신의 성품도 부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성결의 윤리는 “구별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행위론적 문제임과 동시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 질문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성결의 윤리는 “무엇을

8) Ibid., 212.

9) 문시영, “덕 윤리의 한국기독교적 재론을 위한 조건과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제44집 (2019), 240.

할 것인가)에 주목하는 ‘함(행위)’의 윤리 안에서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를 추구하는 ‘됨(성품)’의 윤리까지 포괄한다.

셋째, 신유 혹은 치유는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와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자 모두 겪게 될 시험과 고난과 질병으로 인한 절망과 죽음의 위기로부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는 의미에서 이를 ‘삶(living)’의 윤리라 부른다. 신유 혹은 치유란 삶의 암흑처럼 다가온 고난과 시련과 질병으로 망가져 버린 죽음지향적 인간존재를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된 최초의 생명지향적 인간존재로의 회복을 의미한다. 치유는 인간의 생명 혹은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자 인간의 간절한 믿음의 결과적 현상이다. 인간의 목숨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의지, 건강한 생의 지속을 위한 간절함이 신유의 현상 속에 녹아 있다.

그런 면에서 치유는 생의 응결(凝結), 생의 경화(硬化), 생의 정지(停止)로부터 벗어나 싱싱하게 살아 있는 생 자체만을 파악하려는 19세기 이후 현대철학의 한 사조로 떠오른 ‘생의 철학(philosophy of life)’과 그 맥이 닿아 있다.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 등으로 대표되는 생의 철학은 움직이지 않는 영원한 ‘정지’만이 진정한 존재라고 보았던 전통적 형이상학을 비판하고, 진정한 실체이자 존재를 ‘운동’으로 본다. 개념화된 이성보다는 움직이는 감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운동하는 존재는 자기동일성을 상실하지 않는 채 지속하려는 ‘생의 약동(élan vital)’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앙리 베르그송의 생의 철학은 치유와 넓은 의미의 접점을 보여준다. 그는 철학에서 인식이란 이차적 활동일 뿐이고, 오히려 근본적인 일차적 활동은 사는 것이라고 파악했다.¹⁰⁾ 따라서 변화무쌍한 삶에 대한 의지, 지속

10) 이광래, 『프랑스 철학사』 (서울: 문예출판사, 1992), 324.

하고자 하는 삶에 대한 열정, 죽음을 넘어선 삶을 향한 사랑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치유의 윤리에 기초철학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재림은 신학적 관점에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하나가 되는 개인의 종말적 체험이자 우주적 심판으로 고백되지만, 현실적으로 재림의 체험은 개인의 실존적 죽음의 사건이며, 이 세상과의 영원한 분리의 사건이다. 재림은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영원히 떠나 그리스도와 의 새로운 차원의 관계속으로 들어가는 새 창조의 사건이다. 하늘의 관점에서 재림은 그리스도의 ‘오심’이지만, 땅의 관점에서 재림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떠남’이다. 본 연구는 이를 ‘감(leaving)’의 윤리로 정의한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곧 우리의 떠나감이다. 재림의 사건은 인간적 측면에서 우리가 평생 거했던 육체의 장막을 ‘떠나감’이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감’이요, 베틀의 베를 ‘걸어감’이다.

따라서 재림에 대한 성찰은 곧 죽음에 대한 성찰이며, 이는 곧 죽음의 철학(philosophy of death)으로 귀결한다. 특히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문제에서 재림은 죽음의 윤리 영역 안에 있다. 죽음에 대한 질문은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삶’에 대한 물음이요, 더 깊게는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형이상학적’ 성찰이다.¹¹⁾ 인간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죽은 다음에도 나는 존재하는가? 사후의 삶은 어떠한가? 재림신앙은 곧 죽음에 대한 인간적 질문에 대한 신학적 대답이다. 동시에 재림과 죽음이라는 우주적이고 실존적인 종말론적 사건은 신학적으로는 신의 심판이지만, 윤리적으로는 최종적 정의의 실현이다. 즉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리스도의 재림 혹은 개인의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이 공평하게 자신들의

11) Shelly Kagan, *Death*, 박세연 역, 『죽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엘도라도, 2012), 24.

자리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림은 곧 죽음과 심판의 윤리이자, ‘정의’의 완전한 실현이다. 물론 이 정의는 인간에 의한 정의 실현보다는 신에 의한 정의 구현에 가깝다.

III. 사중복음 신앙의 보편적 가치윤리

일반적으로 인간은 규범윤리학에서 말하는 의무나 목적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 “너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만 한다” 혹은 “너는 저 너머의 목적을 위해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무론적, 목적론적 명령은 더 이상 인간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오히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그것이 내게 무슨 이익이 되는가”에 달려 있다. 그 행동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갖고 있느냐를 따진다. 이것이 바로 가치다. 가치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¹²⁾이다. 여기서 문제는 나에게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될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가장 높은 가치라면, 어떤 이에게는 정신적 행복과 평화가 최고의 가치일 수 있으며, 또 다른 이에게는 희생과 섬김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최고의 가치일 수 있다.

가치의 세계에는 물질적 가치로부터 정신적 가치, 영적 가치, 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요구되는 가치체계들이 존재한다. 한편, 가치는 단순히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이해관계의 망을 벗어나 모든 인간이 공감하고 누리고 추구하는, 이른바 ‘보편성(universality)’¹³⁾을 향

12) 김중기, 『참가치의 발견』 (서울: 참가치, 1995), 9.

13) 생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보편성과 일반성을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사람들이 일반성을 곧 보편성으로 알고 쓰는 것에 대한 그의 개념 구분이다. 그에 따르면, 일반성(generality)이 통계적이고 지역적이고 숫자적인 개념이라면, 보편성(universality)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이성적’으로 누구나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합의된 개념이다.

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근대적 절대담론과 거시담론이 무너진 포스트모던적 주체담론과 개별담론의 시대에 보편성의 추구는 전체주의적 지배담론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치의 세계에서 보편성이란 동서고금 어느 누구도 이성적으로 제기할 수 없는 합의 가능한 일종의 선형적 공유체게이며, 따라서 윤리의 영역에서 보편성의 담지는 필수불가결한 선결 조건이다.

그렇다면 사중복음의 사상은 보편적으로 어떤 가치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 기독교 사상이 유대교를 넘어 그리스도교라는 새로운 신앙체계이자 세계적인 종교로 뻗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사도바울의 보편정신¹⁴⁾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진실이다. 기독교의 복음이 당시 지중해 헬라문화 전반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탈유대주의, 탈선민주의, 남녀노소 평등주의, 사해동포주의, 보편적 구원주의, 보편적 사랑 등 그 시대를 사는 인간들에게 공감과 이성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윤리적 메시지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중복음 속에 숨겨진 신앙적 가치는 어떻게 보편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가치는 오늘날 어떤 윤리학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을까?

1. 중생과 생명가치의 윤리

중생은 한 인간의 생의 한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과의 만남과 함께 버려진 존재에서 받아들여진 존재로, 옛사람의 존재에서 새사람의 존재로, 육체적 존재에서 영적 존재로, 멸망적 존재에서 구원적 존재로 전환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생명’ 사건이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을 때 떠올리신 이미지는 ‘태어남’이었다. 어머니

14) Paul Bede Johnson, *A History of Jews*, 김한성 역. 『유대인의 역사』 (서울: 포이에마, 1987), 225~229.

의 뱃속으로부터 아기라는 육체덩어리가 태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생명적 행위이다. 거듭남이라는 영적 탄생 또한 이런 의미에서 생명적 사건이다.

중생이란 영적 생명 탄생의 체험이다. 모든 인간은 중생해야 한다는 사중복음의 메시지는 보편윤리의 관점에서 모든 인간은 생명적 존재이며,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으며, 그러므로 죽음보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보편적 메시지로 전환된다. 중생은 근본적으로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넘어가는 변화의 사건이자, 새로운 인간존재로의 재창조 과정이다. 따라서 중생의 보편가치는 ‘생명’이다.

오늘날 생명윤리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생명을 논하는 학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른바 생명윤리라는 용어는 인문과학 분야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미국 의학계의 의료윤리에서 출발한 학문으로써, 포터(Van Rensselaer Potter)에 의해 ‘생명윤리학(bioethics)’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다.¹⁵⁾ 즉 이 명칭은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전반의 윤리문제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가 아니라, 의학의 발달에 따라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료사태에 직면하여 이를 의사뿐 아니라 일반인의 윤리적 결정을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¹⁶⁾ 따라서 낙태, 인간복제, 동물실험, 유전자 변형, 장기기증, 안락사 등 인간생명 문제에 대한 의료적 대응의 윤리를 다루는 생명윤리분야에 중생 속에 내포된 생명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연결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과 범주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생이 함의하고 있는 생명의 가치를 단순히 생명윤리로 환원 및 축소하기보다, 생명 그 자체의 보편적 가치에 주목하는, 이른바 ‘생명가치윤리(life-centered value ethics)’를 제안한다. 생명가치윤리에서는 기존의 생명윤리가 다루는 육체적 생명이라는 주제를 넘어 인

15) 이재룡, “동양법사상과 생명윤리,” 『한국학논집』 제64집(2016), 94-95.

16) Ibid., 95.

간존재 안에 걸쳐있는 다양한 생명의 측면들을 포함한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단순히 육체적 삶과 죽음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정신적, 영적,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생명까지 포괄한다. 왜냐하면 “생명은 시장가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대표적인 비시장재화(non-market goods)”¹⁷⁾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이 가격으로 측정할 수 없는 무한가치라는 점에서 생명이치윤리는 기독교신학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서의 인간존재의 신적 존엄성 개념과 잇닿아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생의 생명 사상은 ‘기독교 생명가치윤리(christian life-centered value ethics)’라는 담론의 장에서 그 보편적 가치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2. 성결과 사랑의 윤리

성결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가 세상의 가치와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가치와 가까워지는 거룩함의 과정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빛으로부터 조명을 받아 내 안의 영적 지식과 지혜가 밝아지고, 이기적 욕망과 탐욕과 유혹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멀어지면서 내 안에 이타적 미덕과 절제와 평화를 채워가는 여정이다. 성결의 삶이란 인간의 영적이고 사회적 삶에서 금지할 법이 없는 미덕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충만함이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개인의 내면에만 머무는 덕이 아니라, 나를 넘어 타자를 향하여 분출되는 덕이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타자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의 덕들이다. 이러한 덕들을 담아내는 보편적 가치는 무엇보다도 ‘사랑’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이란 곧 이타적 사랑의 삶이다.

17) 김운희, “인간생명가치에 대한 고찰,”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8권 제3호 (2016년 9월), 106.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요구되는 성결한 삶이란 강도 만난 자 앞에서 멈추고, 치료하고, 돌보고, 추가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이다. 성결은 결코 독야청청의 영성으로 은둔하는 탈 사회적인 배타의 삶이 아니라, 시장과 거리로 나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먹이는 긍휼이요, 세리와 창녀에게 편견 없이 대하는 포용력이며, 스스로를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울곧음이다. 이것들은 모두 사랑이라는 보편가치로부터 나온다.

그렇다면 사랑의 가치는 오늘날 윤리학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 기독교에서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이중계명으로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규범적 가르침들의 강령(본뜻)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사상을 한 마디로 집약하여 요약한 하나님의 뜻이다.¹⁸⁾ 그만큼 사랑은 기독교 정신의 정수이자, 성경이 강조하는 핵심 신학이자 윤리이다. 나아가, 사랑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우구스티누스, 버나드, 아퀴나스, 톨리히 등 수많은 신학자와 영성가들이 관심 있게 주목했던 주제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사랑에 대한 윤리적 논의를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수행하고 있는 국내 학자로는 이창호가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사랑의 윤리』에서 사랑의 규범적 본질에 관한 일반적인 고찰에서 인간 사랑의 모범으로서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의 관계성, 규범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기독교의 이해, 기독교 사랑론의 패러다임적 접근들, 자기사랑의 문제 등을 기독교의 신학적, 윤리적 논의의 장에서 다루고 있다.¹⁹⁾ 그리고 사랑의 윤리 담론을 사회윤리적으로 확대하여 공적, 정치사회적 영역에서 이른바 ‘정치적 사랑’의 구현으로서의 평화윤리를 탐색하고 있

18) 이창호, 『사랑의 윤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20), 7.

19) Ibid., 8.

으며, 현대 사랑의 윤리 담론의 주요 쟁점으로서의 보편 중심적 접근과 특수 중심적 접근의 입장들을 소개하고, 사랑의 원초적 동기로서의 자기 사랑에 관한 다양한 지점들을 짚어주고 있다.²⁰⁾ 한편, 일반윤리학이나 철학에서 사랑에 대한 쇠렌 키에르케고르, 임나누엘 레비나스, 미하일 바흐친, 슬라보예 지젝과 같은 사상가들의 주장들 또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고 있다.²¹⁾

3. 치유와 평화의 윤리

신유 혹은 치유는 모든 생명적 존재에게 불가피하게 따르는 죽음적 상황, 곧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사회적 고통과 정치, 경제적 부조리와 폭력적 구조로 인하여 파괴된 존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어 원래적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생명적 존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적 존재가 창조 질서와 조화로운 상태라면, 질병적(죽음적) 존재는 무질서와 부조화의 상태를 가리킨다. 모든 건강한 생명체는 유기적 관계 속에서 소통하지만, 허약한 생명체에는 유기적 관계가 끊어지고 상호소통의 채널이 파괴되어 갈등과 충돌로 인한 소모적 값어먹기가 반복된다.

치유는 이러한 모든 생명적 존재를 파괴하는 무질서, 부조화, 소통부재, 관계파괴로부터 질서와 조화와 소통과 관계를 다시 여는 ‘살림’ 상태로의

20) Ibid., 9-15.

21) 이들에 대한 2차 연구자들의 몇몇 논문은 사랑의 윤리 논의에 참고가 되리라 보여진다. 이명곤, “키에르케고르 : 윤리적 실존의 양상과 사랑의 윤리학,” 대한철학회, 『철학연구』(2014.2). 이승구, “키에르케고어의 ‘사랑의 역사’에 나타난 사랑의 윤리,”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2006.6). 마상룡, “오늘날 이웃사랑은 어떻게 가능한가 : 지젝의 이웃사랑의 윤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과종교학회, 『문학과 종교』(2019.9). 김영숙, “바흐친의 사랑의 윤리학,” 한국노어노문학회, 『노어노문학』(2015.12). 황설중, “얼굴과 폭력 그리고 사랑 - 레비나스와 헤겔을 중심으로,” 한국헤겔학회, 『헤겔연구』(2013.12).

회복의 능력이다. 히브리어 ‘샬롬’으로부터 번역된 평화란 근본적으로 모든 사물 혹은 존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다시 놓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치유 또한 인간의 몸 혹은 정신 혹은 영혼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지는 것이며, 타자 및 타집단과의 조화로운 관계의 회복이다. 이것을 우리는 평화의 상태라고 말한다. 따라서 치유의 보편적 가치는 ‘평화’이다.

치유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평화는 평화윤리의 장에서 그 논의를 확장할 수 있을까? 평화란 넓게는 국가 혹은 사회적으로 전쟁과 충돌이 없는 상태이고, 좁게는 인간 개인에게 가해지는 고통과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안정적 상태를 의미한다. 치유란 전쟁과 충돌과 고통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자유, 회복이라는 면에서 평화이다. 치유는 단순히 신체적 질병을 넘어선 심리적, 사회적, 국가적, 문화적, 생태적 평화의 실현이다. 즉 치유라는 용어는 신체적 치유, 심리적 치유, 사회적 치유, 국가적 치유, 문화적 치유, 생태적 치유라는 범위의 확장성을 갖고 있다. 이를 필자는 전인적(영·혼·육) 치유와 구조적 치유(사회·문화·생태)로 범주화할 수 있다고 본다.

치유로서의 평화윤리는 인간에게 전쟁과 충돌과 고통과 질병을 가져다 준 원인으로서의 ‘폭력’에 주목한다. 폭력이란 “비대칭적 혹은 불균형적인 관계구조에서 비롯하는 권력(힘)의 일방적 발현”이며, 반면 평화란 “힘의 균형적 관계 혹은 대칭적 관계”를 전제한 상호성의 개념이다.²²⁾ 따라서 인간의 질병과 고통과 전쟁과 충돌은 모두 일방적이고 파괴적인 폭력 메커니즘에 따른 희생이자 피해이며, 평화는 이로부터의 회복이자 정상화이다. 따라서 폭력의 연구는 평화윤리의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과정

22) 김상기, “팔레스타인 홀로코스트와 기독교 고발담론의 윤리,”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한국기독교윤리학논총 13집』(2009.12), 64.

이며, 폭력에 대한 성찰 없는 평화윤리는 내용 없는 형식이며, 뼈대 없는 신체이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윤리학에서 평화윤리의 역사는 주로 전쟁에 대한 입장표명식 논쟁의 역사였다.²³⁾ 폭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탐구는 20세기 들어 요한 갈통(Johan Galung)의 평화학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이른바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으로 요약되는 갈통의 폭력론은 오늘날 평화윤리의 발판이다. 갈통을 시작으로 폭력의 근원을 타자성의 배제와 전체성에서 본 임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타자윤리²⁴⁾, 사회혁명적 힘으로서의 폭력을 말한 조르주 소렐(Georges Sorel)의 프롤레타리아 폭력론, 신화적 폭력을 넘어 신적 폭력을 추구한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의 메시아적 폭력론, 폭력을 권력의 실패로 정의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권력-폭력 대립론, 폭력의 구조를 지속시키는 폭력을 갈파한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상징폭력론, 폭력을 끝장내는 만장일치의 폭력을 찾아낸 르네 지라르(Rene Girard)의 희생양 이론²⁵⁾ 등이 등장했다. 이들의 사상은 우리에게 폭력에 대한 다각적인 관점과 심층적인 측면들을 볼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해준다.

이러한 이론들이 평화윤리를 위한 소극적 단계로서의 폭력 성찰이라면, 한편에서는 적극적으로 평화를 향한 구체적 사상을 수립하려는 시도

23) 필자는 2008년 박사학위논문에서 기독교신학의 폭력에 대한 담론을 ‘입장표명식 윤리 담론’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비판한 바 있다. 필자는 폭력에 대한 실제적 규명과 성찰 없이 전쟁이라는 표피적 현상만을 놓고 찬성과 반대를 내놓는 피상적 대응의 윤리가 갖는 맹목성과 허상성을 지적하고, 폭력의 가장 근원적이고 기원적 현상이라 할 제노사이드 연구를 통하여 폭력이 실제로 발생하는 원인과 유형과 메커니즘에 주목하여 폭력의 작동과정 및 원리를 탐구한 바 있다. 김상기, 『제노사이드 속 폭력의 법칙』 (서울: 선인, 2008).

24) 레비나스는 폭력의 근원을 타자의 타자성을 불인하고 배제하는 서구의 동일성과 전체성의 사유 속에서 찾고 있다. 김연숙, “레비나스의 평화 윤리 연구” 국민윤리학회, 『국민윤리연구』 제63호(2002), 407.

25) 김상기, op.cit., 67-113.

들이 있다. 평화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명이자 하나의 우리, 하나의 교회, 하나의 현실을 이루어 나가는 끊임없는 과정²⁶⁾이라고 주장한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의 평화윤리,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하라는 이념적인 대안을 제시²⁷⁾함으로써 국제관계의 윤리가 전쟁의 패러다임으로부터 법적 평화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기준을 제시²⁸⁾해 주었던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영구평화론, 평화를 절대명령이자 정언명령으로 보고 획일성과 통제성에 바탕을 둔 전체주의가 아니라 타자와 공존하는 화의 사상 혹은 협화의 철학을 통한 세계주의를 외친 함석헌의 평화사상²⁹⁾ 등이 있다.

4. 재림과 정의의 윤리

재림은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의 신앙’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결과적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즉 개인의 실존적 죽음의 차원과 역사의 우주적 심판의 차원으로 나타난다. 기독교신학에서 종말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특히 구약성경의 후반부 포로시대부터 나타난 묵시적 종말사상의 의미는 작게는 인간 개인의 인생, 넓게는 사회 혹은 국가의 역사에는 항상 시작과 끝이 있다는 진리이다.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끝이 있고, 사회와 역사에는 종말이라는 심판이 있다.

26) 김성호, “디트리히 본회퍼의 ‘평화’ 이해에 관한 기독교윤리학적 담론,” 『신학과 선교』 제46집(2015), 265, 291. 아울러, 이상철은 본회퍼가 주장하는 계명으로서의 평화는 민족주의나 국가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꾸며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평화라고 정의한다. 이상철, “본회퍼와 테리다를 통해 바라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기독교 윤리적 제안,” 기독교윤리학회, 『신학과 선교』 제57집 (2019.12), 247.

27) 박채욱, “칸트의 평화: 하나의 철학적 기획 그리고 이념,”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제33집 2004년 여름, 21.

28) 임미원, “칸트의 영구평화론,”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제14권 제1호(2011), 67.

29) 김대식, “함석헌의 평화사상 - 비폭력주의와 협화주의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8집 2호(2016), 74.

인간 개인의 실존들이 살아내는 생의 순간들은 항상 부조리와 모순의 연속이다. 사회와 역사 또한 불평등과 불공평, 그리고 불의한 구조의 체계 속에 놓여 있다. 그러나 죽음이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공평한 선물이다. 하나님의 우주적 심판 또한 이 땅에서의 불공정한 삶에 대한 보상적 대반전이다. 악인도, 선인도, 의인도, 죄인도 모두 죽음과 심판이라는 완전한 ‘정의’ 앞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보응받을 것이다. 이 모든 정의로운 상태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다시 오심으로 썩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재림신앙이다. 이러한 재림신앙의 근저에는 정의의 완전한 실현, 정의의 온전한 회복을 향한 강력한 추구하고 희망이 있다. 따라서 재림이 담고 있는 보편적 가치는 ‘정의’이다.

그렇다면 재림의 복음은 정의의 윤리학에서 보편가치로서의 의미 확장을 모색할 수 있을까? 어쩌면 재림을 통한 정의의 실현은 ‘불가능한 가능성(impossible possibility)’이자 ‘종말론적 희망사항’이며, 이른바 ‘희망고문’일 수 있다. 현실을 모르는 형이상학적 신학의 상상적 기획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정의를 논했던 수많은 사상가들의 담론은 현실적이었고 실현가능했는가? 그렇다고 답하기에는 정의의 윤리는 여전히 미완적이다. 그만큼 정의론은 동서고금 막론하고 어렵고 지난한 과제이다.

서양철학의 역사에서 많은 철학자들이 정의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정의를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조화를 이룰 때 성립하는 최고의 덕목으로 본 플라톤을 시작으로, 정의란 각자가 자기의 것을 취하며 법이 정하는 바대로 하는 미덕이라고 정의한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으로 규정한 칸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정의로 본 벤담 등³⁰⁾이 있다. 아울러, 신학계에서는 정의를 “영속적이며 항구적인

30) 이흥식, “백이론, 조선 사대부의 정의론,” 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회연구』 제72집

의지에 의해서 각자에게 그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을 주는 습관³¹⁾으로 본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정의라는 사회적 이상을 사랑이라는 종교적 이상에 의한 변증법적으로 접근하려 했던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³²⁾, 생득권으로서의 정의를 기반으로 이 땅의 학대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주장한 니콜라스 월터스토프(Nicolas Wolterstorff)³³⁾ 등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정의론에 대한 학문적이고 실제적인 논의는 1971년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의 등장으로 본격화하였다. 롤스 정의론의 핵심은 분배의 정의(distributive justice)이다. 현대의 정의론은 롤스의 분배정의론을 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이론은 정의 담론의 핵심적 전제이자 출발 지점이다. 오늘날 분배정의론은 롤스의 자유주의를 시작으로, 개인의 정의를 극대화하려는 노직(R. Nozick)의 자유 지상주의, 그리고 알래스대어 매킨타이어, 마이클 샌들 등으로 대표되는 공동체주의로 대별할 수 있다.³⁴⁾

그러나 동시에 롤스의 분배적 정의는 그 한계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비판과 함께 두 단계로 진일보한다. 바로 아이리스 영(Iris Young)과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에 의해서다. 영에 따르면, 사회구조적 갈등의 근본-근간을 이루는 것은 경제적 물질-계급관계 상의 불평등-분배 부정의(롤스의 관점)라기보다, 사회적-정치적-문화적인 정체성과 관련된 지배-억압구조에 있다.³⁵⁾ 영이 주목한 부정의의 주요 현상은 억압이고, 그것은

(2018), 72.

31) 김민석, “아퀴나스의 정의론: 정의의 목적으로서 공공선 추구,” 한국신학연구소, 『신학사상』 제186집(2019 가을), 327.

32) 황민효, “라인홀드 니버의 정의론의 재고,” 『한국조직신학논총』 제29집(2011), 184.

33) 박성철,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의 정의론에 대한 연구,” 『성경과 신학』 87집(2018), 174-178.

34) 김동일, “분배정의론이란 무엇인가? -자유주의 분배정의론의 쉬운 이해와 통괄적 연구를 위한 틀,”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제17권 제3호(2014), 227.

착취, 주변화, 무력함, 문화제국주의, 폭력의 양상으로 나타난다.³⁶⁾

나아가, 프레이저는 롤스와 영의 두 입장을 끌어안고 이를 제3의 단계로 가져간다. 그는 자원의 분배에 기초한 경제주의적 계급질서를 문제삼는 롤스와 정체성의 차이-인정의 관점에서 정치문화적 위계질서를 문제시하는 영과 함께, ‘정치적 참여 상의 동등함’이라는 제3의 통합적 정의의 지평을 새로 연다.³⁷⁾ 즉 ‘재분배’도 중요하고 ‘인정’도 중요하지만, 수혜자가 아니라 동등한 당사자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정의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IV. 사중복음 신앙의 글로벌 가치윤리

1. 근사치적 가치로서의 글로벌 가치윤리

모든 윤리적 행위와 규범은 항상 원래의 정신에서 이탈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항상 보다 높은 보편가치와 정신에 의하여 인도되어야 한다.³⁸⁾ 따라서 보편가치와 정신이 배제된 모든 윤리적 행위와 규범은 결국 윤리적 담론의 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편의 가치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멀리 있다. 라인홀드 니버가 제대로 지적했듯이, 그것은 ‘불가능한 가능성(impossible possibility)’³⁹⁾의 세계일 수 있다. 십자가의 제자도와 부활의 초월성을 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가 우리에게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이상주의적 윤리

35) 임미원, “정의개념의 다차원성 -아이리스 영과 낸시 프레이저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37집 제3호(2020), 6.

36) 위의 논문, 7.

37) 위의 논문, 20.

38) Reinhold Niebuhr,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이한우 역.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서울: 문예출판사, 1960), 346.

39) Reinhold Niebuhr, *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박봉배 역. 『그리스도인의 윤리』 (서울: 삼성출판사, 1956), 67.

(idealistic ethic)'인 것처럼, 사중복음의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신앙에서 뿜어나오는 생명과 사랑과 평화와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윤리는 21세기 4차 혁명 시대를 사는 인간들에게는 '허공을 맴도는 매우 아름다운 소리'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보편적 가치란 지극히 아름답고 소중하지만 결코 사용할 수 없는 박물관의 유물처럼 유리관 안에 갇혀 볼 수만 있을 뿐, 만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죽은 정신체계일 수 있다. 이렇듯 보편정신의 비현실성을 간파했던 라인홀드 니버는 궁극적 목표로서의 불가능한 보편가치 담론만을 집착하기보다, 궁극적 목표에 이르기 위한 현실 가능한 근사치적 목표(approximate goal)를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는 이를 근사치적 가치(approximate value)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사중복음의 근사치적 가치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제 근사치적 가치로서의 글로벌 가치윤리(global value ethics)를 제안한다. 보편적 가치가 동서고금 모든 인간의 이성에 부응하는 이상적 정신윤리라면, 글로벌 가치는 오늘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공동체적 인식의 최대 경계선이 지구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안에서 소통되고 공감할 수 있는 현실가능한 시대윤리를 가리킨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내 손 안의 아이폰에서 나오는 유튜브 영상이 순식간에 지구촌 70억의 인구가 동시다발의 형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지구촌 차원의 '글로벌 공동체(global community)'의 시대이다.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보다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만질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사중복음은 글로벌 가치로 전환될 수 있는가?

2. 사중복음 신앙의 글로벌 가치윤리

첫째, 중생이란 우리말로 거듭남이고, 거듭남이란 두 번 태어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곧 생명의 탄생이자 새로운 출발의 사건이다. 옛 자아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아로, 세상적 존재에서 신앙적 존재로, 죄 아래 있는 인간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으로의 존재적 전환이다. 따라서 중생은 전적으로 변화의 윤리이다. 중생이 전하는 윤리적 메시지는 인간은 변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바뀐의 가치(value of changed)'라고 명명한다. '바꿈(change)'이 아니라 '바뀜(being changed)'이다.

중생은 인간의 노력과 수행의 결과로 얻어진 '변화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변화됨'이기 때문이다. 중생을 세상에 외친다는 것은 인간은 언제나 변화되는 존재이며, 변화될 수 있으며, 변화되어야 한다는 윤리적 가치를 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외치는 세상문명의 급속한 변화 숭배주의와는 그 궤가 다르다.

이른바 "인간은 바뀔 수 있다"는 중생이 함의하고 있는 바뀐의 가치는 크게 두 가지 윤리적 세부 행위를 낳는다. 어떻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가? '벗음'의 윤리와 '입음'의 윤리이다. 기독교는 인간의 존재론적 변화를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엡 3:22-24). 예수 그리스도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순간 사람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벗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입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 존재라고 배운다. 불교는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벗음'에서 찾았고,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에서 발견했다. 벗음은 해탈이요, 입음은 구원이다.

따라서 기독교는 벗음과 입음의 행위 모두를 수용한다. 고통과 번뇌의 벗음이 해탈이지만, 기독교는 해탈과 함께 하늘의 구원을 기다리는 종교다. 벗음이 있으면 입음이 있어야 한다. 비움 뒤에는 새로운 세계의 채움이 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중생의 글로벌 가치는 ‘바깥의 가치’이며, 이 가치는 옛 사람의 ‘벗음’과 새 사람의 ‘입음’이라는 구체적 행위윤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성결은 근본적으로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질문이며, 이론의 탐구가 아니라 실천의 고민이다. 성결은 사중복음 가운데 유일한 윤리적 명령이기도 하다. 성결은 개인의 내면과의 관계에서 출발하여 이웃이라는 타자와의 관계, 나아가 교회와 사회와 국가라는 집단적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윤리적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이 성결이며, 이 답은 근본적으로 구약성서의 모세오경, 특별히 레위기의 ‘거룩(카도쉬)’ 명령에서 기원한다. 400년 애굽의 노예로 탈출하여 자유와 해방을 찾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첫 윤리적 명령이 거룩함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이루실 이스라엘 민족의 비전을 이른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출 19:6)으로 선포하셨고, 레위기와 신명기는 제사와 거룩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율들을 수립하고 있다.

토라에서 거룩, 즉 카도쉬의 핵심개념은 ‘구별’, 좀 더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분리’이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분리, 만질 수 있는 것과 만질 수 없는 것의 분리, 만날 수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없는 사람의 분리,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분리이다. 이방제국 애굽의 문화 속에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과 이방문화와의 과감한 분리만이

유일한 방법이었고, 하나님은 이를 거룩의 명령을 통해 이루시고자 했다.

토라의 이러한 분리의 명령은 유일하신 야훼신앙을 지키는데 지대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 시대에 와서 거룩의 윤리는 왜곡된 선민의 식(아브라함의 자식, 선택된 백성)과 광범위한 차별문화(이방인, 여성, 어린이, 창녀, 세리), 그리고 배타적 종교성(예루살렘 성전중심주의, 율법승배주의)으로 나타나면서 예수로부터 강력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예수는 선민의식에 매몰된 바리새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식이라 자랑하지 말라고 촉구하셨고, 이방인과 여성과 세리들을 거침없이 만나고 어울리셨으며, 성전을 둘러엎으시며 성전제사의 부패를 고발하셨으며, 모세율법의 본래 정신을 근원적으로 재해석했다.

급기야 산상수훈의 원수사랑 명제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고 선언하심으로써,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 19:2)”는 토라의 말씀을 동일형식에 맞추어 다른 내용을 제시했다. 바로 ‘온전함’의 윤리가 그것이다. 산상수훈의 앞뒤 문맥상 온전함이란 이웃과 원수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요, ‘끼리끼리’ 문화의 배타적 공동체성을 깨는 명령이다. 이웃을 넘어서 원수까지 포용하는 정신이다. 따라서 오늘날 성결, 혹은 거룩의 윤리는 적어도 토라적 전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적 전통 모두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구약의 분리 정신과 예수의 포용 정신을 성결의 윤리 속에 담아내지 못한다면, 오늘날 글로벌 가치의 세계에서는 도태될 것이다.

그렇다면 성결은 어떤 글로벌 가치의 윤리로 전환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를 ‘다름(difference)’의 가치로 명명한다. 다름이란 ‘구별’일 수는 있지만 ‘차별’일 수는 없다. 다름은 ‘포용’일 수는 있어도 ‘배제’일 수는 없다. 다름의 가치로서의 성결은 세상의 가치와 구별하지만, 결코 세상의

가치를 차별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구별이란 순수하고 단순한 의미의 분리가 아니라, ‘분리하고 결합하기’이기 때문이다.⁴⁰⁾ 다름의 가치로서의 성결은 세상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포용하고 존중하지,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 다름은 분리와 포용 모두를 담아내는 개념이다. 오늘날 성결의 윤리는 세상과의 다름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글로벌 가치일 수 있다.

셋째, 신유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고치신다는 신적 주체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면에서 다소 신학적 편향성을 가진 용어임을 부인할 수 없다. 심지어 의학문명의 발달로 대다수의 질병은 모두 병원이 해결해주는 시대에 신유의 사상은 외면받기 좋은 주제이기까지 하다.⁴¹⁾ 따라서 오늘날 비기독교 영역에서 신유는 치유라는 탈신학적이고 탈종교적 용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신유라는 용어와는 달리 치유, 이른바 ‘힐링(healing)’으로 불리는 이 단어는 오늘날 시대적 유행과 현상을 반영하는 상징언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의 병고침 사역을 일컫는 말로 시작된 치유의 개념은 육체적 병고침 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침까지를 아우르는 전인적(wholistic) 회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가벼운 기분 전환의 감정을 나타내는 용어 정도로 가벼워지고 대중화되었다. 치유라는 말이 대중화되었다는 것은 이 시대가 모든 면에서 아픔이 많거나 슬픔이 깊다는 뜻일 것이며,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위로받고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바라는 감정들이 높다는 의미일 것이다. 따라서 치유의 복음은 이 시대가 찾는 바로 그 복음일 수 있으며, 기독교가 이 시대를 향해 주어야 할 그 복음일 수 있다.

40) Miroslav Volf, *Exclusion and Embrace*,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1996), 99.

41) 최현중, “사중복음 종교사회학,” 서울신학대학교 글로벌사중복음연구소 엮음, 『글로벌 신학과 사중복음』 (서울: 한들출판사, 2015), 399.

그렇다면 치유의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글로벌 가치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이를 ‘나옴’의 가치로 규정한다. 순우리말인 나옴이라는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들어있다. 하나는, 질병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회복된다는 의미에서의 ‘나옴(recovery)’이고, 다른 하나는 삶의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삶보다 자신의 삶을 더 낮게 본다는 의미에서의 ‘나옴(better than)’이다. 전자의 나옴이 회복의 윤리라면, 후자의 나옴은 삶의 긍정의 윤리이다. 전자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가치라면, 후자는 행복한 삶을 바라보는 가치이다. 전자가 모든 관계와의 화해와 용서의 가치로 확장된다면, 후자는 전자를 힘입어 진일묘한 사랑과 평화의 가치로 발전할 수 있다. 전자의 치유가 회복을 통해 건강한 자아정체성, 즉 웰빙(well-being)의 삶을 살게 한다면, 후자의 치유는 긍정을 통해 건강한 행동성, 즉 웰두잉(well-doing)의 삶을 열어준다.

넷째, 재림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비적 체험이자 성결의 최종 완성의 사건이다.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이며 인간의 욕망과 유혹과 탐욕으로부터의 전적인 해방의 상태이다. 아울러, 불의한 세상과 인간에 대한 우주적 심판이자 의롭고 선하며 박해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정의의 회복이다. 재림이야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최종적 승리의 순간이다.

본 연구는 재림의 글로벌 가치를 ‘누림(enjoy)’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중생이 구원의 의식화라면, 성결은 구원의 생활화이며, 신유가 구원의 능력화라면, 재림은 구원의 영속화이다. 중생과 성결과 신유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영적 싸움의 여정 속에 주어진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라면, 재림은 이 모든 싸움의 여정을 마치고 개선하는 장군처럼 완전한 구원의 승리를 누리는 영적 축제의 순간이다.

축제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내려놓고 오로지 기쁨만을 누리는 감동

의 사건이다. 재림은 인간의 실존적 죽음과 우주적 심판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완전한 기쁨의 체험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실제적 거함으로 인한 온전한 희열을 경험하는 신앙이다. 이러한 재림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즉 재림을 통한 완전한 ‘누림’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조건적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유와 정의이다. 죄와 사망과 유희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만이 재림의 누림에 참여할 수 있다. 동시에 이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으로 회복된 정의를 맛본 자만이 재림의 누림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와 정의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실존적 죽음과 우주적 종말에 대한 ‘적극적 수용(active acceptance)’, 즉 ‘받아들임’에서 시작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종말적 심판과 실존적 죽음에 대한 인간의 받아들임 없이는 어떠한 자유나 정의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신학적으로 이러한 완전한 누림은 전적으로 종말론적 사건이자 탈현세적인 신비적 체험으로 취급되고, 윤리학적으로 볼 때 재림을 통한 누림의 가치는 이상주의적 윤리, 즉 ‘불가능한 가능성’의 가치로 치부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희망의 신학, 희망의 윤리가 짝이 틀 수 있다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재림의 윤리는 죄와 사망과 억눌림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얻기 위한 수고, 불의와 부정과 불평등으로부터 진정한 정의를 이루기 위한 싸움을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재림을 통한 온전한 누림을 위한 자유와 정의의 투쟁은 현실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희망의 신앙, 희망의 윤리일 수 있으며, 따라서 재림은 사중복음의 가장 완전한 복음일 것이다.

〈표 1〉 사중복음의 철학윤리, 보편가치윤리, 글로벌가치윤리 범주

사중복음	철학윤리	보편가치	보편윤리	글로벌가치	글로벌윤리
중생	인식론	생명	생명윤리	바쁨의 가치 (벗음과 입음)	‘됨’의 윤리 (being)
성결	행위론	사랑	사랑윤리	다름의 가치 (구별과 포용)	‘함’의 윤리 (doing)
신유	생의철학	평화	평화윤리	나옴의 가치 (회복과 긍정)	‘삶’의 윤리 (living)
재림	죽음철학	정의	정의	누림의 가치 (수용과 희망)	‘감’의 윤리 (leaving)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본 연구는 사중복음 사상을 윤리적 영역에서의 보편가치로 전환하고자 하는 해석학적 모색을 시도해 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신과 인간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신앙영역의 사상을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비롯하는 윤리영역의 사상으로 재구성하는 일이다. 이는 곧 신앙영역에서 윤리영역으로의 범주적 전환 과정에서 파생되는 의미의 지나친 비약, 범주간 논리적 모순, 그리고 주관적이고 선언적 오류에 대한 비판적 검증에 직면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사중복음의 윤리적 전환가능성을 시도하고자 하는 것은 윤리적 보편가치로 전환되지 않는 신학 사상 혹은 신앙은 사이비 종교적 맹목성과 광신성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사라질 비생명적, 비지속적 진리의 잔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중복음을 윤리적 가치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일을 위해서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사상 혹은 체험이 어떤 도덕철학적 영역 속에서 논의될 수 있는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중복음 담론이 확대-재생산되기 위해서는 철학적 영역과의 접점을 찾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야 한다. ‘됨(being)’의 윤리로서의 중생은 존재론과 인식론의 철학을 토대로 생명가치윤리로, ‘함(doing)’의 윤리로서의 성결은 행위윤리와 덕윤리라는 철학윤리를 토대로 사랑의 윤리로, ‘삶(living)’의 윤리로서의 신유는 생의 철학과 케를 같이 하면서 평화윤리로, ‘감(leaving)’의 윤리로서의 재림은 죽음의 철학과 함께 정의윤리로 논의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중생은 생명, 성결은 사랑, 신유는 평화, 그리고 재림은 정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그러나 보편적 가치는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라 일컬어지는 지구촌 문명사회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가치로 재편되어야 할 상황적 요청 앞에 선다. 따라서 오늘날의 글로벌 지구촌의 맥락에서 사중복음 각각의 가치는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중생은 ‘바깸’의 가치로 나타나며, 일종의 변화의 윤리이며, 이는 벗음과 입음이라는 성서적 환복 이미지를 통해 표현된다. 성결은 ‘다름’의 가치로 불려질 수 있으며, 다름으로서의 성결은 다르기에 구별되지만 다르기에 포용할 수 있는 이중의 가치를 보여준다. 신유는 ‘나움’의 가치로 전환되며, 파괴된 몸의 회복으로서의 나움(회복)과 더 건강한 몸의 유지와 지속으로서의 나움(긍정)이라는 두 측면을 모두 포괄한다. 재림은 실존적 죽음과 우주적 심판이라는 종말론적 신앙사건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재림사건은 영원한 ‘누림’의 가치로 구성되며, 이러한 누림을 위해서는 죄로부터의 실존적 자유와 심판으로부터의 우주적 정의라는 종속적 가치에 의해 실현될 것이다. 이러한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는 나의 실존적 죽음과 심판에 대한 적극적 수용력, 즉 받아들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요컨대, 사중복음의 보편윤리를 향한 전환 가능성의 모색은 이를 위한 작은 해석학적 상상력의 시도이다.

참고문헌

- 글로벌사중복음연구소 편. 『19세기 급진적 성결운동 지도자들의 생애와 사상』 서울: 도서출판 사랑마루, 2014.
- 김대식. “함석헌의 평화사상 - 비폭력주의와 협화주의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8집 2호, 2016, 45~79.
- 김동일. “분배정의론이란 무엇인가? -자유주의 분배정의론의 쉬운 이해와 통괄적 연구를 위한 틀.”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제17권 제3호, 2014, 225~266.
- 김민석. “아퀴나스의 정의론: 정의의 목적으로서 공공선 추구.” 한국신학연구소, 『신학사상』 제186집, 2019 가을, 323~353.
- 김상기. “팔레스타인 홀로코스트와 기독교 고발담론의 윤리.” 한국기독교윤리학회, 『한국기독교윤리학논총 13집』, 2009. 12, 63~92.
- _____. 『제노사이드 속 폭력의 법칙』. 서울: 선인, 2008.
- 김성호. “디트리히 본회퍼의 ‘평화’ 이해에 관한 기독교윤리학적 담론.” 『신학과 선교』 제46집, 2015, 261~297.
- 김연숙. “레비나스의 평화 윤리 연구.” 국민윤리학회, 『국민윤리연구』 제63호, 2002, 407~429.
- 김영숙. “바흐친의 사랑의 윤리학.” 한국노어노문학회, 『노어노문학』, 2015년 12월, 259~282.
- 김윤희. “인간생명가치에 대한 고찰.”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 제18권 제3호, 2016년 9월, 105~124.
- 김중기. 『참가치의 발견』. 서울: 참가치, 1995.
- 마상룡. “오늘날 이웃사랑은 어떻게 가능한가 : 지젝의 이웃사랑의 윤리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과종교학회, 『문화과 종교』, 2019년 9월, 53~81.
- 문시영. “덕 윤리의 한국기독교적 재론을 위한 조건과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제44집, 2019, 223~250.
- 박성철. “니콜라스 윌터스토프의 정의론에 대한 연구.” 『성경과 신학』 87집, 2018, 165~192.
- 박채욱. “칸트의 평화: 하나의 철학적 기획 그리고 이념.”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 제33집 2004년 여름, 203~226.
- 방효익. 『영성사』. 서울: 바오로딸, 1996.
- 오성욱. “사중복음 조직신학.” 서울신학대학교 글로벌사중복음연구소, 『글로벌신학과 사중복음』 서울: 한들출판사, 2015.
- 이광래. 『프랑스 철학사』. 서울: 문예출판사, 1992.
- 이명곤. “키에르케고르: 윤리적 실존의 양상과 사랑의 윤리학.”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2014년 2월, 167~191.
- 이상철. “본회파와 데리다를 통해 바라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기독교 윤리적 제안.” 기독교윤리학회, 『신학과 선교』 제57집 2019년 12월, 237~268.
- 이승구. “키에르케고어의 ‘사랑의 역사’에 나타난 사랑의 윤리.” 기독교학문연구회, 『신앙과 학문』 2006년 6월, 103~146.
- 이재룡. “동양법 사상과 생명윤리.” 『한국학논집』 제64집, 2016, 91~116.
- 이창호. 『사랑의 윤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20.
- 이홍식. “백이론, 조선 사대부의 정의론.” 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회연구』 제72집, 2018, 69~96.
- 임미원. “정의개념의 다차원성 -아이리스 영과 낸시 프레이저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37집 제3호, 2020, 1~37.
- _____. “칸트의 영구평화론.”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제14권 제1호, 2011, 43~68.
- 최인식. 『데우스 호모』.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21.
- 최현중. “사중복음 종교사회학.” 서울신학대학교 글로벌사중복음연구소 엮음, 『글로벌신학과 사중복음』. 서울: 한들출판사, 2015.
- 한상기. “도덕 인식론과 윤리적 회의주의.” 한국동서철학회논문집, 『동서철학연구』 제62호, 2011년 12월, 211~228.
- 황민효. “라인홀드 니버의 정의론의 재고.” 『한국조직신학논총』 제29집, 2011, 183~213.
- 황설중. “얼굴과 폭력 그리고 사랑-레비나스와 헤겔을 중심으로.” 한국헤겔학회, 『헤겔연구』 2013년 12월, 225~257.
- Aumann, Jordan. *Spiritual Theology*, 이홍근 역. 『영성신학』. 왜관: 분도출판사, 1987.
- Bernard, Charles Andre. *Teologia Spirituale*, 정제천·박일 역. 『영성신학』. 서울:

가톨릭출판사, 1987.

Dayton, Donald W. *The Fourfold Gospel and Evangelicalism*, 박창훈 역. 『사중 복음과 복음주의』.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출판부, 2020.

Foster, Richard J. & Beebe, Gayle D. *Longing for God*, 김명희 · 양혜원 역. 『영성을 살다』. 서울: IVP, 2009.

Johnson, Paul Bede. *A History of Jews*, 김한성 역. 『유대인의 역사』. 서울: 포이에마, 1987.

Kagan, Shelly. *Death*, 박세연 역. 『죽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엘도라도, 2012.

Niebuhr, Reinhold. *An Interpretation of Christian Ethics*, 박봉배 역. 『그리스도인의 윤리』. 서울: 삼성출판사, 1956.

Niebuhr, Reinhold.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이한우 역.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서울: 문예출판사, 1960.

Volf, Miroslav. *Exclusion and Embrace*,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IVP, 1996.

논문투고일: 2022년 03월 12일

심사개시일: 2022년 03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04월 11일

• 국 문 초 록 •

이 논문에서 신학교리이자 사상으로서의 사중복음을 윤리학의 장에서 재구성하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사중복음 각각의 이념이 철학윤리의 범주에서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가를 모색했다. 사중복음 담론이 확대-재생산되기 위해서는 철학적 영역과의 접점을 찾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편적 가치에 이어 본 연구는 근사치적 가치로서의 글로벌 가치 윤리를 다시 모색하였다. 글로벌 가치윤리로서의 중생은 ‘바깥’의 가치로 나타나며, 이것은 일종의 변화의 윤리이며, 이는 벗임과 입임이라는 성서적 환복 이미지를 통해 표현된다. 성결은 ‘다름’의 가치로 불려질 수 있으며, 다름으로서의 성결은 다르기에 구별되지만 다르기에 포용할 수 있는 이중의 가치를 보여준다. 신유는 ‘나임’의 가치로 전환되며, 파괴된 몸의 회복으로서의 나임(회복)과 더 건강한 몸의 유지와 지속으로서의 나임(공정)이라는 두 측면을 모두 포괄한다. 재림은 실존적 죽음과 우주적 심판이라는 종말론적 신앙사건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재림사건은 영원한 ‘누림’의 가치로 구성되며, 이러한 누림을 위해서는 죄로부터의 실존적 자유와 심판으로부터의 우주적 정의라는 종속적 가치에 의해 실현될 것이다. 이러한 자유와 정의를 위해서는 나의 실존적 죽음과 심판에 대한 적극적 수용력, 즉 받아들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주제어: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보편가치윤리, 글로벌가치윤리, 생명가치윤리, 사랑윤리, 평화윤리, 정의의 윤리
